

## 과거사청산위원회 준비위 발족식 및 심포지엄

과거청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달 3일(금)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법국민위원회 준비위'가 발족했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발족선언문에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길을 찾고 있으며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가려한다."고 말하며 이는 곧 "인권과 평화의 21세기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과거 청산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은 1부 '과거문제의 성격과 과거청산의 중요성, 2부 입법과정 등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안병욱(가톨릭대)·정호기(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교수의 발제 이후 김원웅(열린우리당), 심상정(민주노동당), 한홍구(성공회대) 등이 토론을 벌였으며 2부에서는 광노현(방송대) 교수의 진행으로 장완익 변호사와 김동춘(성공회대) 교수의 발제와 원혜영(열린우리당), 이영순(민주노동당), 최병모(변호사) 등의 토론이 시종 진지하게 이어졌다.

##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국민운동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

지난달 1일(수) 국회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민주노총·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 등 1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가 있었다.

운동본부는 "쌀을 개방한다면 심각한 식량 위기와 참혹한 기아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쌀 개방 반대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농지법 개악 중지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

위)를 혁신하는 새로운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과 함께 운동본부는 작년 멕시코 WTO 각료회의에서 자결한 이경해 열사 추모 1주년을 맞이하여 6일부터 12일까지를 '이경해 열사 추모 및 우리쌀 지키기 주간'으로 정하고 쌀 개방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선전전과 서명운동, 쌀 지키기 범국민대회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